**WPI Profile 결혼마저도 과제, 해야 하는 일의 일부이다 : 에이전트**

에이전트를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 즉 일을 참 잘 처리한다고 칭찬합니다. 사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그에게는 일이 곧 생활이고, 생활이 곧 일입니다. 맡은 바 임무 완수를 완벽하게 잘 하는 것에 대해 나름 뿌듯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동료들은 자신을 ‘일밖에 모르는 건조한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에이전트는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를 확실히 수행해야 두 발 뻗고 자는, 책임감으로 똘똘 뭉친 성격인 탓입니다.

에이전트는 항상 계획적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입니다. 주어진 과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정확하게 완수하고, 결과물의 우수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합니다. 지나치게 추진력을 발휘하느라고 간혹 독선적이라는 평가도 듣습니다. 그는 일을 통한 성취감에서 존재감을 획득하는 유형이라, 직장 내에서도 인간관계보다 업무를 우선합니다.

취미 생활을 할 때에도 전문가 뺨칠 정도로 몰두합니다. 에이전트에게는 취미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프라모델 조립이 취미인 에이전트는 귀가 시간이 몇 시가 되었든 반드시 2~3시간씩 건담을 조립하고 잠듭니다. 그가 건담을 조립하는 순간에는 아내도 아이들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는 완벽주의자인 만큼 동료나 친구로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하므로 타인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에이전트는, 인간관계에서도 성실 그 자체입니다. 나름, 지나치게 자신에게 비판적이거나 타인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도 나쁜 감정은 아닙니다. 단지, 감정 표현이 무디다는 평가 정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의 경우, 일을 하듯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때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인간 관계 속에서, 자기 스타일대로 일을 진행할 수 없을 때 좌절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업무 계획이 자주 수정될 때 극도로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손에서 일을 놓아버리고 완전히 포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태도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결과지향적이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인간관계 자체보다는 일을 우선합니다. 유능해야 한다는 강박증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보고서를 마치고 출력할 때 가장 만족감을 느낍니다. 차갑고 과제중심적인 인간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믿고 맡겨주세요!**

간섭을 싫어하기에 일임해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변화가 생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는 어느 정도 프레임이 정해진 상황에서 자기 나름대로 수행하는 상황을 좋아할 뿐, 프레임을 짜는 데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처음에 그려 놓은 판이 바뀌는 것은 힘들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 중간중간 보고를 하다가 계획이 바뀔까봐 노심초사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당신은 변화를 싫어하기에 자신의 생각의 틀이 주변 상황이나 중요한 타인의 거시적 코드 또는 관점과 잘 맞았을 때에는 추진력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독선적이고 단정적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일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자신의 틀에서 이해가 되는 일을 잘 합니다. 방향이나 비전에 대해 공유하고 공감하는 리더가 아니라면 이런 성향의 사람과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업무를 통해 드러나는 스타일**

자기 아이 양육이든 취미 생활이든 뭐든 강박적으로 하고 일단 꽂히면 오타쿠적 성향을 보이는데, 이는 일종의 강박적 성향입니다. 그런데, 에이전트가 인간에 대한 관심이 없느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지만 과업 지향적인 성향에 가려지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에이전트를 차갑고 과제중심적인 인간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데, 정작 에이전트는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일과 관련 없는 맥락에서 알게 된 사람이라면 에이전트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에이전트는 지나치게 인간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문제는 어쨌든 일을 잘 하고 난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에이전트 성향의 사람이 상사라면 나태한 부하를 보지 못합니다. 일을 하고 나면 사람이 발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프로젝트 컨설팅과 관련한 일을 편해 합니다. 이런 사람은 부하가 되려고 하지 않으며, 부하가 되더라도 유능하지만 결코 쉬운 부하는 아닙니다. 내공이 있는 선수끼리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는 비교적 차갑고 과제중심적인 성향이 부각되기 쉽습니다.

**장면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모습**

코드가 안 맞을 경우 독선적이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과 관련 없이 알게 된 사람은 에이전트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지각할 수 있습니다. 강박적인 성향이 있기에, 취미 생활이든 뭐든 어딘가에 꽂히면 오타쿠적 성향을 보입니다.